

웃둥 보살 빛둥 거사 <57>

구성 : 김흥민



선인(仙人)을 보고 활을 쏜 아버지

<백유경(百諭經)>

옛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가게 됐다. 아들은 숲에 들어갔다 꿈을 만났고 그만 곰 발톱에 몸이 찢겨 황급히 숲을 나와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이 몹시 상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다. "너는 어쩌서 그런 상처를 입었느냐?" 아들은 대답했다. "몸의 털이 긴 어떤 동물이 와서 나를 해쳤습니다." 아버지는 곰 활을 가지고 숲으로 가서 털이 긴 어떤 선인(仙人)을 보고 활을 쏘려 했다. 옆 사람이 물었다. "왜 그를 쏘려 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비록 그가 범복을 입고 무도한 자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선량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해치면 그것은 곰이 그 아들을 해쳤다 해 아버지가 억울한 선인을 해치려 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신인이 땅을 희사하다 신인사지(神人捨地)



고판화박물관 소장 <신인사지(神人捨地)> 중 신인사지(神人捨地) 판. 불암사판 1673년 간행(半部)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이 도깨비가 나타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교화를 시작하자 신인이 나타나 땅을 희사해 청정도랑을 가꾸게 했으며, 그 이후로는 맹수와 독사들이 길들여지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마조도일(709-788) 스님은 당나라 때 선승으로 혜능 문하의 남회향의 법을 이었다. 그가 이른 홍주종(洪州宗)과는 후에 임제종(臨濟宗)으로 발전하게 된다. 평상심이 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즉불(即心即佛))'를 주창했으며 교리 설명을 담은 <어록(語錄)>이 전해진다. 회양 선사께서 회상(會上)을 열어 법을 펴시니, 마조가 와서 신심을 내어 율령정진 했다. 그런데 마조가 좌선하는 것만을 고집해 자리를 뜨는 법이 없자, 선사께서 마조에 게 말을 건네셨다. "수좌는 좌선에 무엇 하려는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하나 집어 와서 마조 옆에서 묵묵히 가시기 시작했다. 마조가 그것을 보고 여쭙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할진대,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옮겠는가, 소를 때려야 옮겠는가?" 마조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선사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대는 좌선(坐禪)을 배우는가, 좌불(坐佛)을 배우는가?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

운다고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앉은 부처를 배운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어느 하나의 법이 아니라 네가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음이네. 무주법(無住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야 하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네." 마조는 여기에서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행주좌와(行住坐臥) 가운데서 일어(一如하게 화두를 참구해 순일(純一)을 이루어서 마침내 크게 깨쳤다. 마조 스님은 이 깨달음을 계기로 선사상의 혁신을 이룩해 조사선을 확립하고 선을 중국에 토착화시켰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 아, 금수강산

| | | |
|--|--|--|
| 이름 하여 금수강산이다 수려하고 장엄하면서 아기자기한 그 풍광은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 신의 축복이다 자비다 하얗은 세월동안 산하를 따라 만물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그것은 자연이요 평등이며 자유다 신의 모습 그대로다 금수강산이다 |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생명들과 함께 이 땅을 지 켜왔다 배달이다 홍익인간이다 단기4342년 8월8일 혜민 |
|--|--|--|

-혜민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사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품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품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287쪽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